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노동부, 뉴욕 주민들이 실업 보증을 먼저 신청할 필요 없이 팬데믹 실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신규 신청서 시행

수당 지급 절차를 더디게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연방 정책 폐지

실업 수당 요청 업무만을 다루는 3,100 여 명의 노동부 담당자, 오늘 아침 신규 신청서 도입과 함께 개선된 절차로 업무 진행

노동부,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110 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실업 수당 22 억 달러 지급

4 월 8 일 이전 신청 미지급 건, 275,000 건에서 4,305 건으로 감소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오늘 뉴욕 주민들이 기존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또는 신규 코로나 19 팬데믹 실업 지원(COVID-19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신청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실업 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뉴욕 주민들이 노동부에 전화하지 않고도 자격이 되는 수당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어제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의 번거롭고 복잡한 지침으로 인해 뉴욕 주민들은 일반 실업 보증을 신청해야 했고 팬데믹 실업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개선된 연방 정책에 부합하는 이러한 신규 신청서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양식 하나만 작성하면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규 신청서 도입과 함께, 노동부는 일주일 내내 실업 수당 신청 업무만을 다루는 3,100 여 명의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노동부 콜센터 담당 직원 400 명에서 증가한 인원입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노동부는 약 22 억 달러의 실업 보험 수당을 뉴욕 주민 110 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4 월 8 일 이전 신청 미지급 건은 275,000 에서 4,305 로 줄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업자였으며, 뉴욕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불안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무는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적어도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뉴욕 주민들이 이러한 난국을 잘 헤쳐 갈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선된 실업 수당 신청 시스템은 어떤 실업 프로그램(실업 보험 또는 팬데믹 실업 지원)을 뉴욕 주민들이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정보 기술 서비스 주 사무국(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및 Google 클라우드(Google Cloud)와 협력하여 4 월 10 일 금요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신청서의 전례 없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방 CARES 법에 포함된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프로그램은 기존 실업 보험에 부적격한 개인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팬데믹 실업 지원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뉴욕 주민들
- 독립 계약자
- 앱 기반 회사에서 근무한 뉴욕 주민(예: "계약 또는 임시 근로자")
- 농부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고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자
-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코로나 19 확진자인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자
- 코로나 19 로 인해 학교 또는 다른 시설에 갈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주요 보호자
- 코로나 19 로 인해 격리 대상이 되었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권고받았기 때문에 근무지에 출근할 수 없는 자
-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의 직접적인 결과로 근무지에 출근할 수 없는 자
- 코로나 19 로 가장이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
- 코로나 19 의 직접적인 결과로 퇴사한 자
- 코로나 19 의 직접적인 결과로 근무지가 폐쇄된 자
- 업무 이력이 불충분하고 코로나 19 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
- 또는 일반 실업 보험이나 확장 실업 보험 수당에 대한 자격이 없으나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은 자

또한 식량 불안정을 염려하는 뉴욕 주민들은 주 전역에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식량 구호 단체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욕주에서 지원하는 구호 단체 등 현지 푸드 뱅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실업 보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뉴욕 주민이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업 보험 청구를 신청하려는 뉴욕 주민들은 웹 사이트(labor.ny.gov)를 방문하거나 전화 청구 센터((888) 209-8124)로 전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뉴욕 주민들이 청구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료입니다.

[팬데믹 실업 지원에 관한 정보 자료](#)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